

## 일본의 양계업

### 산란계

#### 2007년도 계란생산량 259만 톤

2007년 계란생산량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감소한 이바라기켄(茨城縣)에서의 생산이 회복되는 등의 동일본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4.5% 증가한 259만9,211톤으로 2003년 기록을 상회하는 사상최고 기록을 기록하여 저난가 원인의 하나를 증명하였다.

지자체별로 보면 찰바켄(千葉縣)이 전년대비 26.8% 증가하여 처음으로 20만 톤을 넘었으며 2위는 이바라기켄(茨城縣)으로 증가율은 49.4%나 되었다. 또한 농림수산성이 2008년 2월 22일 정리한 2007년도 하반기 계란 유통량통계에 의하면 계란생산량과 출하량은 모두 전년을 상회하였다. 도오꼬(東京), 오오사까(大阪) 2개 도시의 연간 입하량은 각각 7.7%, 5.9% 증가하였다. 계란생산량이 전년대비 증가한 지자체는 1위 찰바(千葉), 2위 이바라기(茨城), 3위 가고시마(鹿兒島)의 순으로 23개 지역이고 감소한 지역은 24개이다(계명신문 발췌).



윤 병 선

한경대 친환경농림축산물인증센터 전임연구원  
농학박사

#### GP세척·살균용 전해수장치 판매

계란 GP센터에서 계란의 세정·살균에 차아염소산소다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때에 따라서 세란기 내부의 오염이 심하고, 청소애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세란기의 부식문제, 잔류농약의 염소냄새가 계란에 남는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중부지역의 대단위판매점 유니그룹의 산(サン)종합유지회사에서는 계란GP센터에서 차아염소산소다를 대신하는 전해수(電解水)장치에 의한 계란의 세정·살균시스템을 권장하고 있으나 2006년 5월 도입한 기후켄(岐阜縣)의 GP센터에서는 「세란기의 청소시간·횟수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것 이외에 계란 낱품처로부터 악취나 곰팡이에 의한 어려움을 아무도 말하지 않을 정도로 적어졌다」고 말하고 지구환경에도 좋은 전해수장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전해수는 전해조내 전극(양극과 음극)사이애 박막을 두고 연수화된 수돗물에 전해보조제(염화나트륨)를 첨가하는 것이며 일정조건에서 물을 전기분해하면 양극쪽에 강산성전해수, 음극쪽에 강알칼리수가 생성된다. 염소가스가 용해되어 있어 이 염소가스에서 생성되는 차아염소산의 작용으로 미생물을 살균하고 강력한 세정소독작용을 발휘한다. 한편, 음극쪽에 생성되는 강알칼리성 전해수는 단백질이나 지질계의 오염에 높은 세정효과가 있는 수산화나트륨이 생성된다.

전해수의 특징은 탁월한 살균력을 유지하면서 잔류성이 매우 낮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이나 살균용 알코올과 같은 손 거칠어짐 등의 염려가 없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커다란 장점이다. 이 회사에서는 계란GP센터에서는 전해수장치에 의한 세정·살균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강산성수의 살균효과, 강알칼리수의 세정효과를 최대한 발휘, (2)차아염소산소다사용과 비교하여 세란기의 수명을 대폭 연장, (3)장마철의 곰팡이 발생이나 잔류염소냄새 등, 불량품의 발생율이 대폭 감소, (4)자동조절시스템에 의한 운영비용 억제 등을 들고 있다(계명신문 발췌).



## 요 계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침 개정

농림수산소비안전국은 2월 21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특정가축전염병방역지침과 방역에 기초한 발생예방과 만연예방조치의 유의사항을 개정하였다. 작년 1월 미야자끼(宮崎縣)와 오끼야마(岡山縣)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응하여 (1)신속한 방역조치 실시 (2)신속한 청정성 확인 (3)교통제한 등의 경찰과의 연대 (4)이동제한조치의 운영변경 등에 대하여 변경한 것이다.

신속한 무역조치의 실시에서는 (1)간이키트에 의한 검사로 양성인 나타난 시점에서 공표하고 격리 등의 방역 조치를 신속하게 행할 것 (2)현지방역대응본부와의 체제를 명확하게 하여 발생농장의 방역조치와 동시에 주변 농장의 청정성 확인검사를 행할 것 등 방역조치에 일층 신속화를 시도한 것이다.

신속한 청정성 확인은 바이러스 분리에 의해 환축으로 판정된 후에 발생농장의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곧바로 주변농장의 청정성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교통통제에 필요한 경찰과의 연대에서는 방역조치를 취할 때에는 시도경찰청에 연락하여 협력을 얻어 원활하고 적절한 방역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이동제한조치의 운영변경은 「이동제한구역내도계장」에 대해서는 (1)새롭게 규정한 위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바이러스 감염의 우려가 없는 이동제한구역내에 살아있는 닭을 반입하여 도계 할 수 있다. (2)이동제한구역외에서 처리된 가금육(내장제거 등)을 반입하여 가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

「이동제한구역내 부화장」에 대해서는 새롭게 규정한 위생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바이러스감염의 우려가 없는 이동제한구역외에서 생산된 종란을 반입하여 부화시킨 병아리를 이동제한구역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금류 알의 출하검사방법」에 관련하여 이동제한구역내의 농장에서 생산된 식용란을 이동하는데 필요한 출하검사로서 지금까지의 실시하던 PCR법에 더하여 동물의약품으로서 승인된 신약에 의한 검사도 인정하기로 하였다(계명신문 발췌).

### 방조용 그물망 판매

이토추우(伊藤忠) 상사, 시끼보우(シキボウ), 다이이치(第一)제망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조용그물망 「폴텍토그물망(フルテクトネット)」을 개발하여 판매를 시작하였다. 「폴텍토」는 폴리에틸렌원사로 짜여진 그물에 시끼보우가 개발한 항바이러스제 「폴텍토」를 도포한 방조용 그물망으로 다이이치제망이 편망(그물짜기)과 도포, 제단봉제가공을 하여 이토추우와 다이이치 제망이 공동으로 판매한다. 이토추우상사가 약제의 후가공이 가능한 폴리에스텔 소재를 선택하고 10분간 약 99.9%의 바이러스가 감소하는 높은 항바이러스기능 등이 증명된 시끼보우의 「폴텍토」와 다이이치제망의 편사와 약제 후 가공, 제단봉제 등의 일관제조체제와 풍부한 그물망제품의 부설판매실적에 착안하여 내구성이 높은 「폴텍토그물망」의 공동개발에 성공하였다. 「폴텍토그물망」의 설치에 의해 양계장 등에 야생조류와 바이러스가 부착된 부유물(야생조류의 깃털이나 분)의 침입방지, 그물망에 부착된 바이러스의 멸각(滅却)효과를 기대한다(계명신문 발췌). **양계**